

# 번식우에 있어서 송아지의 안전한 이유방법



유우개량부 심사팀  
팀장 양신철 역

돼지 등에서는 분만돈의 불의의 사고나 자돈이 한꺼번에 많이 출산된 경우 타 모돈으로 수유장소를 옮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화우번식에 있어서는 빈우(어미소의 유량이 적은 경우 이 소들의 송아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용유를 사용하여 인공포유(조기이유방식)를 한다.

단, 이 방법은 카프하치(이동식우리)를 사용하여 매일 확실히 대용유를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우(母牛)의 젖(乳)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분의 시간과 대용유비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은 이와 같은 노동과 지출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유량이 많이 나오는 모우의 젖을 이용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다른 모우의 보급자리에 넣어도 모우는 발로 차거나 코로 밀어붙이거나 하여 다른 송아지에게 젖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유모우에 접근하는 것이 큰 장벽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코자 다른 모우의 젖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고 나아가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였기에 번식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바이다.

## 사도시 선정과 사도사에서 꺼내는 법

송아지가 태어나 초유를 먹고 난 뒤 7~10일 경과 한 후 모우의 유기가 부푸는 것이 좋지 않거나 10일 후의 송아지 체중이 출생시와 비교해 6kg 이상정도 늘지 않거나 모우의 젖이 적은 가능성이 있기



<사진 1> 재료는 일부러 구매하지 않아도 축사 내에서 바로 어떤 것이라도 대용할 수 있다. 사진에 있는 것도 농장내에 있는 것이다.



<사진 2> 어디에서든 손에 쉽게 취할 수 있는 수건의 양쪽 끝을 가위로 구멍을 내어 비닐 끈을 통과시켜 만든다. 이것으로 눈을 가리는 방법은 아오모리현의 발굽깎는 기술자가 소로부터 차이지 않기 위해서 가린 것을 응용했다. 보는 것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사토시(수유를 위한 대리모를 찾아 옮기는 것)로 보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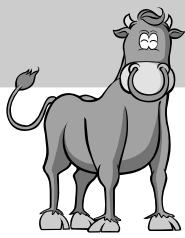
사토시로 옮기려고 결정하였다면 사토시에 들어가는 새로운 모우에는 수건으로 만든 눈가리개를 한다.(사진 1~3)

본 눈가리개를 한 채로 사료 주는 것을 한 3~4일정도 계류하여 사토시로 들어간 소에게 눈가리개에 적응을 시킨다. 그 후 문제가 되는 유량이 적은 모우로부터 이별을 시킨다. 그리고 그대로 반나절 내지 하루정도 이유 시킨 송아지를 떨어뜨려 놓는다. 점차적으로 송아지는 갈증이 생길 때 젖을 먹고 싶어 하게 된다.

이것은 조기이유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송아지를 끌어안고 눈가리개를 한 새로운 모우에게 데리고 가서 유두를 물린다. 모우는 자기 송아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냄새와 시각 기능을 통해 판단하지만 이미 모우는 스탠존에 묶여 냄새로 느끼기에는 불가능하며 시각기능도 봉쇄 상태라 판단하기가 힘들다. 목이 타는 송아지는 유두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새로운 모우는 눈가리개를 하고 사료를 먹고 있는 동안에는 내 송아지인가? 라고 의심이 와도 다른 송아지에 대해서도 수유를 허락 할 수밖에 없다. 또 꼬리가 심하게 요동할 경우에는 꼬리를 묶기도 한다.(사진5)

몇 회정도 단련시키면 송아지는 자연적으로 사료시간이 되면 뒤에서 대기하고 자신이 저절로 마시게끔 된다(사진6)

그 정도쯤이 되면 눈가리개를 하지 않은 채 나뉘도 가능하게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눈가리개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모우는 자연스럽게 젖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별 이상



<사진 3> 꼬리를 뒤로하여 묶는다. 처음에는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4> 농장의 「아이라(이름)」송아지입니다. 지금 맛있게 젖을 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없다. 이것과 병행하여 인공유를 먹이도록 하고 부족분을 더하면 성공이 된다.(사진7)

이 방법은 연동스탄존을 설치하고 있는 농가이면 좋은 방법이지만 스탠존이 없는 독방식의 사육에 있어서도 사료시간에 확실히 떼어 두고 실시하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 사토시를 성공시키는 포인트

또, 이 사토시 방법을 실시함에 있어 주의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눈가리개를 한 소가 위와 같이 적응이 안되어 흥분하여 난동하는 경우는 중지한다. 그러나 본 목장에선 5두정도 모두 실시한 결과 모두가 하루정도에 익숙해져 문제가 발생치 않았다.

다음은 송아지가 탈수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 깊게 해야 할 것이다.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져 있는지 그리고 오줌을 배뇨한다면 음수든지 우유가 충분히 소화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안심 사항이다. 그리고 송아지의 목주위의 가죽을 가볍게 잡아 당겨서 놓았을 때 곧바로 원상태가 되면 안심이다. 1초정도 원형이 그대로 있으면 심각한 탈수증상



<사진 5> 눈을 가리고 있는 대리모 소는 생각할 것이다. ‘응, 내 새끼 일거야? 그럴 거야?’



<사진 6> 왜 젖 먹는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 거야?



<사진 7> 젖이 부족할 경우 인공유로부터 섭취하면 된다.

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중지하여 인공포유로 변환시킨다. 이 관찰은 사토시에 들어간지 3일정도 주의 깊게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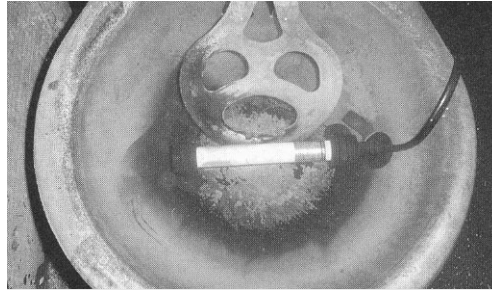
셋째는 사료를 급여한 후 스탠존의 락커를 해제하기 전에 반드시 눈가리개를 먼저 풀어준다는 것이다.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대로 가리개를 한 채로 락커를 해제하면 매우 위험하다.

넷째는 스탠존에 락커가 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송아지를 다른 방에 놔두어야 한다. 자우(송아지)자신은 항상 젖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두 접근하려고 한다. 그때에 모우가 자신의 송아지가 아니다 라고 인식되면 허용 없이 날려버린다.

다섯째는 모우의 교환이라는 스트레스를 송아지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겨울에 접어들면 워터컵의 물이 얼지 않도록 최대한 온수장치를 두거나 통풍을 막거나 하는 것이다.(사진8)

마지막으로 쌍자의 송아지는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하했을 경우 다른 소에 비교하여 체구가 적다. 이것은 유량의 경합에 의한 것이라 말해진다. 즉 이 방법을 도입한다면 축주 자신이 송아지 육성의 궤도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쌍자 소유의 축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러나 이 마이너스 부분은 축주 자신의 실력으로 커버가 된다. 이상의 점을 주의하면 불행히도 빈유(貧乳)의 어미로부터 태어난 송아지라 하더라도 다른 소의 젖을 받음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 본 기술은 모우가 수유를 거부한 경우나 분만사고에 의해 어미가 죽은 경우의 원인으로도 낙농가로부터 얻은 초유나 초유분말이라도 먹이면 응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번식효율의 향상에 기여하는 응용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험중이다. 또 다른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8> 이것은 겨울에 우사에서 차가운 물을 먹지 않도록 제작해 놓은 것이다. 사진의 모습은 열대어용의 수족관을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이다. 특히, 송아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고정해 놓아야 한다.